

전북지역 축산식품 소비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

정이형*, 박형기

전북대학교 동물자원과학과

본 연구는 전북도민들의 건강과 활동제고를 위한 축산식품의 소비증진을 위하여 전북 주요 지역의 축산식품소비량을 조사하여 세계 주요국 및 우리나라의 소비량과 비교 연구 검토하였다.

설문 조사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각지역 가정주부 각각 100여명씩 무작위로 선정하여 5개 년도(1997~2001)의 축산식품평균소비량 및 소비사항을 가정방문을 통하여 조사하였다.

그 결과 연간 일인당 축산식품 소비량 중 식육은 17.4 kg, 육가공품은 4.06 kg, 우유는 9.26 kg, 계란은 87.5 pieces를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 이는 세계 주요국 평균식육소비량의 18.3%, 우리나라 평균식육소비량의 54.8%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축산식품 소비경향 중 식육을 구입하는 이유로는 가족보양이 53.3%, 기호성이 24.7%등을 나타내었다. 식육구입 빈도는 일주일에 1번이 가장 많았으며 이용은 일주일에 1~2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가장 선호하는 축육류는 돈육(75.2%)이었으며, 그 이유는 기호성·맛 때문이라고 설문(64.3%) 되었다. 이들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 위생상태가 27.5%였으며, 냉장·냉동여부, 육색, 브랜드 순으로 나타났다. 구입한 돈육의 형태는 3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박피육(38.2%)을 4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탕박육(47.3%)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학생들이 좋아하는 식단으로는 육식(81.1%), 육식과 채식(16.6%), 채식(2.3%)의 순이었으며, 육식 중 돼지고기, 닭고기, 소고기의 순으로 선호하였다. 노인들이 좋아하는 식단으로는 육식(66.4%), 채식(17.1%), 육식과 채식(16.6%)의 순이었으며, 육식중 소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의 순으로 선호하였다. 가장 즐겨먹는 육가공품은 통닭(49.6%)이었고, 구입빈도는 일주일에 1~2번이 가장 많았다. 이들 육가공품을 구입하는 이유로는 간식 33.1%, 도시락 및 반찬 28.2%였으며, 편리성, 기호성 순으로 나타났다. 육가공품 구입시 고려사항으로 유통기한이 47.8%였으며, 브랜드, 간편성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
전북지역 축산식품 소비량 및 소비사항을 조사한 결과 전국평균식육소비량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
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발전을 위 하여는 좀더 많은 축산식품의 생산이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.